

### 뜻밖의 환대, 고객은 절대 잊지 못한다

사람·비즈니스 관계를 혁신하는 차별화 전략



놀라운 환대

월 구이다라 지음, 우혜림 옮김, 더북, 1만9500원

넷플릭스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혹백 요리사’에는 100명의 요리사가 등장한다. 이미 요리계에서 명성이 자자한 유명 셰프부터 자영업자·유튜버 등 각자의 자리에서 실력을 입증한 도전자들이 요리 최강자가 되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

라운 일이 벌어졌을까. 그 비밀은 2달라짜리 핫도그에 있었다. 신간 ‘놀라운 환대’는 고객 만족을 넘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함으로써 진정한 관계를 구축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조직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일상생활에서도 강력하고 의미 있는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차별화된 접근법을 경험할 수 있다.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재료·조리법·맛·색감·플레이팅 등 아주 세심한 부분부터 전체적인 조화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면에서 최선을 다하는 도전자들의 모습이 시청자의 감동을 자아냈다.

저자는 ‘진정성 있는 환대’ ‘과격적인 수준의 환대’ ‘이탈로 비즈니스와 인간관계에서 최고의 성과를 끌어내는 방법’이라고 강조한다. 손해보는 것은 그 어떤 작은 것이라도 용납하지 않으며 효율과 수익·합리성만을 중시하는 시대에 책은 큰 비용 없이 아주 사소한 변화만으로도 최고의 성과를 끌어낼 수 있는 미래 지향적 가이드를 제시한다.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로 특이한 요리 업계에서 자신만의 실력으로 일인자가 되고 그 명성을 이어 나가는 일은 쉽지 않다.

임유이 기자 lye@skyedaily.com

월 구이다라 26세 때 뉴욕의 평범한 레스토랑인 ‘일레브 매디슨 파크’의 경업을 맡아 11년 후 그곳을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으로 탈바꿈시켰다. 어떻게 이런 놀

### 사진 200장이 전하는 가장 극적인 근·현대사

세계사 격동의 시기, 1850~1960년 주요 장면들



선명한 세계사 1·2

댄 존스·마리아 아마랄 지음, 김지혜 옮김, 윌북, 각권 1만7800원

지난 100년간 제국주의가 세계로 뻗어 나가고 제3세계는 침략을 받았으며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들은 열강에 굴복했다.

년 ‘선명한 세계사’로 이름을 바꾸어 재출간되었다.

그 와중에 세계는 두 차례의 큰 전쟁에 휩싸였다. 이 시기에는 많은 인물이 등장했다. △공군과 혁명이 △천재와 과학자 △왕과 왕비 △멸망하는 나라의 마지막 황제 △마지막 인디언 추장까지. 격동의 시대를 살아간 그들은 본래 컬러풀한 세상을 살았다. 그럼에도 우리는 빛바랜 모습으로만 그들과 그 시대를 기억한다.

역사 채색 전문가 마리아 아마랄은 2년 여에 걸쳐 과거의 색깔을 철저히 고증하고 1만 장의 사진 기록을 200개로 세심하게 선별, 근·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장면을 완벽히 복원해 냈다.

‘선명한 세계사 1·2’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기인 1850년부터 1960년까지를 풀 컬러로 완벽하게 재현한 역사 화보집이다. 근·현대사 속 가장 중요한 200장면을 선명한 사진과 생생한 스토리텔링으로 구성했다.

그들의 색감·피부색·머리카락과 제복의 색 등 제 컬러를 찾아 복원하는 것은 본래의 성질을 되찾고 생명력을 부여한다는 면에서 유의미하다. 순수주의자들은 컬러가 위조라고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흑백이 위조다. 세상은 언제나 컬러풀했다. 인간의 삶이 그렇듯이.

이 책은 원래 ‘역사의 색’이라는 이름으로 출간돼 베스트셀러에 오른 것을 2025

아마랄이 만든 경이로운 이미지에 역사 다큐멘터리 작가 댄 존스의 간결하고 탄탄한 스토리텔링이 곁들여지며 ‘역사는 지루하다’는 인식을 바꾸어 놓는다.

임유이 기자 lye@skyedaily.com

## “나도 지브리처럼”… 챗GPT 이미지 열풍

국내 일간 이용자 125만 여대금 디즈니·심슨 애니 이미지 모방 너도나도 SNS '프사'에 올려 저작권 침해·혐오 표현 논란도

이미지 생성 모델을 앞세워 화제를 모으고 있는 챗GPT의 일간 이용자 수가 처음으로 120만 명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달 27일 기준, 챗GPT 국내 일간 활성 이용자 수(DAU)는 역대 최다인 125만292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달 10일 챗GPT DAU는 103만3733명으로, 첫 100만 명대를 기록했는데 약 2주 만에 최다 기록을 다시 경신한 셈이다. 지난 달 1일까지만 해도 챗GPT DAU는 79만9571명에 불과했다.

이같은 이용자 급증은 오픈AI가 지난 달 25일 출시한 신규 이미지 생성 AI 모델 ‘챗GPT-4o 이미지 생성’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 모델이 공개된 이후, 전 세계의 챗GPT 이용자들이 디즈니·심슨 가족 등 인기 애니메이션 화풍의 이미지를 생성해



챗GPT로 생성한 축구선수 손흥민 이미지.

소셜미디어(SNS)에 올리며 화제가 됐다.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화풍은 ‘하울의 숲’ ‘센과 치히로의 행



스카이데일리 연합뉴스

지난달 27일 백악관 공식 X 계정에 게재된 챗GPT로 생성한 지브리 스타일 이미지. 17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마약 밀매, 불법 거주 혐의로 체포된 여성을 재현했다. 백악관 X 캡처

### 생방 중 욕설… MBC ‘두 시의 데이트…’ 법정 제재



MBC FM ‘두 시의 데이트’ 진행자 안영미. MBC

SBS FM ‘컬투쇼’에도 ‘주의’

진행자의 욕설로 파문을 일으켰던 MBC 라디오 프로그램이 법정 제재를 받게 됐다.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MBC FM ‘두 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진행자는 지난해 10월 라디오 생방송 중 욕설을 했다.

방심위는 3일 전체 회의를 열고 욕설 등 부적절한 내용을 내보낸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법정 제재인 주의의를 의결했다.

한 더보이즈 선우에 “성대모사 요청이 오면 어떻게 하나”고 물었다. 다 해 드린다는 답변이 나오자 “그리고 뒤돌아서 ‘씨 X’ 하시는 건가”라고 말했다. 이후 “신발 신발 한다고요”고 덧붙였다.

MBC 측은 “우발적이긴 했지만 제작진과 진행자 모두 정말 잘못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다. 더 주의 깊게 방송 제작을 하기로 했다. 다시는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체크하고 있다 명백한 잘못이며 진행자에게 지나치게 재미를 쏠다가 실수하면 안 된다는 점을 주시시키고 재발 방지를 다짐받았다. 비슷한 사고 발생 시 코너 폐지나 조정 등도 고려하고 있

다”고 말했다.

방심위 측은 “생방송 중 욕설이 나온 것을 제작진이 들었을 텐데 프로그램 말미에 사과 조치 없이 다음 날 사과 멘트만 나오고 사과문을 올리지 않았다. 방송 중 욕설한 쇼호스트는 출연 금지 2년을 받았는데 안일한 처사였다”고 꼬집었다.

또 지난해 5월 남성의 고환을 소재로 한 사연을 소개한 SBS FM ‘두시탈출 컬투쇼’에 ‘주의’를, 아의 변기에서 소변을 보는 여성의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해 방송한 JTBC ‘사건現場’에 대해서는 행정 지도인 ‘원고’를 의결했다.

임유이 기자 lye@skyedaily.com

# 국방의무 필하려 입대한 당신의 아들이 학살자로 매도 당한다면...

## 44년 만에 빛 본 5·18 출동 계엄군의 육필 수기

80년 5·18 충청작전 투입 185공병대대 장병 증언집

### 우리가 그때 광주에 있었다

1980년 5월 광주사태 사건 현장에 투입된 185공병대대 장병 73명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고자 했던 처절한 심정과 생각을 읽을 수 있다.

최종원 편저 | 468쪽 | 25,000원

기록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185공병대대 자필 체험담

5·18 역사에 대한 가공되지 않은 생생한 진실 보고서

“눈알 빠지는 고통 속에 돌아서는데 육중한 것이 등에 가해져 거꾸러졌다. 간신히 일어나 차에 오르려는데 총소리가 들렸다. M16이었다. 그들이 우리를 향해 쏘고 있었다.” - 185공병대대 참모부 병사 성명 미상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은 최루탄 몇 발뿐이었다. 실탄 없는 총은 동등이 만도 못했다.” - 185공병대대 3중대 병장 정철호

“역사는 진실을 기록하는 자가 만든다” - 지만원 박사

도서출판 크스카이 구입 문의 02)522-6595